

삼계화택 불길 잡는 사찰에서의 '힐링'

(三界火宅)

삼광사, 힐링치유문화 공감콘서트 “고통 받는 이 시대 해답은 힐링”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부정적 현상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 'OECD 가입국 중 자살율 1위'라는 부끄러운 명에는 좀체 떨어질 줄을 모른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우울증과 혐오 등으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부처님은 이 같은 무명중생들의 고통을 '삼계화택(三界火宅)'으로 비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문화가 바로 '힐링'이다. 나침반을 잃은 선장처럼, 지도를 잃은 산악가처럼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힐링사찰' 부산 삼광사(주지무원)는 지역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사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뻗고 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이 지푸라기가 아닌 온기 가득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지난 3월 1일, 삼광사는 부산과 경남 일대 시민들을 위해 지관전에서 '힐링치유문화 공감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전문 패널들을 초청해 참가자들에게 힐링에 대한 참된 답을 제시하면서 명상다도체험과 자신을 찾아가는 만다라 체험, 다도 테라피 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밤의 시작을 시기하는 꽃샘추위로 인해 바람은 차고 거셴지만 부산 경남에서 '힐링'을 찾아온 시민 300여 명이 지관전을 가득 채웠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패널로 삼광사 총무국장 도선 스님, 교무국장 자룡 스님, 김철민 박사(부산대학병원 항노화기술개발사업단장), 임윤선 박사(한양대 교육대학원 예술치료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콘서트는 먼저 힐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로 시작했다.

도선 스님은 “힐링이란 것이 곧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잘 쓴다는 것은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잘 써야 한다”며 “마음과 몸은 이어져 있다. 욕심내지 않고 주위와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곧 힐링이고 건강의 비결이다”고 운을 뗐다.

김철민 박사는 “100세 시대이자 고령화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행복하려면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다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윤선 박사는 △한국인의 문화심리 특성 △한국사회의 심리문제와 현황 △심리치유의 필요성 △심리치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임윤선 박사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상호존중적 집단중심문화”와 “체면중시 경향” ‘수동-공격성 성향’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 박사는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을 표출시켜 증상을 완화하는 예술 치료를 권했다. 예술작업을 통해 대상의 문제점이나 상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예술활동 과정 속에서 내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설명을 들은 참가자들은 각자의 속앓이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한 참가자는 “나이가 60인데 남편이 지금까지 밖으로만 돌고 집은 외면한다. 자식들에게는 숨기지만 하고 내 속만 타 힘들었다”며 “최근에 친구에게 털어 놓고 실컷 울었더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이것이 맞는 방법인가?”라고 질문했다.

자룡 스님은 “잘하신 방법이다.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말을 하고 응원군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위로했다. 이어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밖으로 가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인정하며 서로를 위한 소통법을 개발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토록 콘서트 이후 참가자들은 삼광사 천대다도보존회에서 마련한 부대행사에



삼광사 '힐링치유문화 공감콘서트' 참가자들이 만다라 그리기를 체험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

전문패널 초청해 조언 듣고 만다라·다도 체험 심신 안정 지역민 위한 힐링술길 개통 “힐링이란 마음 잘 쓰는 것”

“치유는 종교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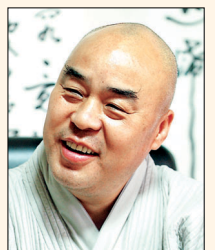
삼광사 주지무원 스님

“종교는 치유의 문화다. 삼광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힐링사찰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지 취임 당시부터 약속했던 것으로 신도들이 괴롭고 마음이 불편할 때 언제든지 삼광사를 찾아 치유 받고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힐링사찰로 자리 잡은 천대삼광사 주지무원 스님(사진)은 고통 받는 대중을 위한 종교의 치유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무원 스님은 삼광사 힐링술길을 신도들과 지역민에게 제공하며 이 길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평온함을 얻기를 서원했다.

무원 스님은 “경내에 조성한 힐링술길은 편백나무와 소나무 사이를 맨 발로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다. 힐링



길을 걸으면 자연이 뿜어내는 치유물질이 몸과 마음을 맑게 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힐링의 궁극적인 힘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영혼과 가피가 충만해진다. 그것은 곧 힐링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나온다”며 “사람들은 실천 없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지만 부처님 진리의 말씀은 내가 실천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광사는 힐링사찰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3월 5일 '힐링술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백천공원에 마련된 힐링술길은 108참회계단부터 행복길, 동행길, 하늘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하늘전망

대와 편백나무숲, 차나무숲, 불두화숲, 무문등 목언명상경기를 체험할 수 있는 산책로다. 술길은 삼광사 뒤편에 조성된 치유공간으로 백천공원에서 극락전으로 이어져 있으며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10여분이 소요된다. 하성미 기자



전문패널의 조언에 따라 주변인들과 교감하고 있는 콘서트 참가자들.



3월 1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열린 '힐링치유문화 공감콘서트'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교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과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으로,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제 2기)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 회장, 꿀관상 신기원 교수, 학선 유래용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청화학술 박정화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신석우박사, 정경연교수, 김인순박사, 김민재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힐링특강-가수 김태곤 박사

대상	명리학 초중급자, 헌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입학식	4월 7일(목) 18:00 ~ 미래특강(미래로 보는 세상)	등록금	240만원
일정	4월 7일 ~ 7월 14일, 매주 목(木) 18:30 ~ 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과정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동국대